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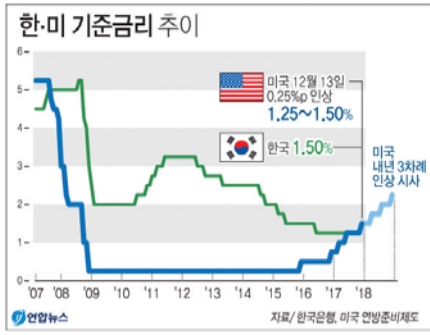
# 환율·금리·법인세 리스크 첩첩산중... 주름 늘어나는 기업들

1원 움직일 때마다 수익원 떠나들어  
금리 1%p만 올라도 기업부담 두배  
법인세율 오르면 연 GDP 29조 감소

# 서울 구로 디지털단지에 있는 정보기술(IT) 부품업체 A사는 최근 3개월 사이에 2018년 경영에 반영할 환율 전망치를 두 번이나 바꿨다.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달러당 1120원대로 잡았다가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와 북핵 리스크로 환율이 다시 하락 기조(원화 가치 상승)로 돌아서면서 재차 수정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이 업체의 재무담당자 김모 이사는 "1원 움직일 때마다 순이익이 적게는 수 억원에서 많게는 두 자릿수까지 왔다 갔다 한다. 기껏 번 돈을 알아서 까먹고 있어 큰일이다"며 걱정했다.

# 철강 제조업체인 B사. 이 기업에 걱정거리가 하나 더 늘었다.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0%로 0.25%포인트 올리면서 저금리 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렸기 때문이다. 운영자금으로 빌린 이자 부담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지 고민이다.

연 초부터 기업들의 주름살이 늘고,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는 곳이 많다. 저금리 시대가 끝나면서 기업들은 '재무리스크'의 트랩(함정)을 걱정한다. 법인세도 걱정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투자는 연평균 4.9%씩 줄고 일자리 수는 연간 10만5000개씩 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원화 가치가 오르면서 환율 민감업종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금리인상, 실적·투자 발목**  
치솟는 금리는 기업들 '재무리스크'의 트랩(함정)에 빠뜨린다.

전문가들은 '금융권 상황 압박과 신용등급 하락→자금 조달 위축→투자 축소→실적 약화'라는 악순환 고리가 경제성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기업들의 레버리지(차입투자)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적잖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이 직면한 도전-일본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이라는 조사보고서에서 한국과 일본은 모두 기업부채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양국이 직면한 문제의 양상은 상당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실제 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도 기업 부담(조달 프리미엄)은 두배가 된다는 분석이 있다.

금융연구원은 '통화정책의 신용분배 효과와 우리나라 기업의 부채구조' 보고서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100bp(1bp=0.01%포인트) 인상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은 전 분기보다 2배 정도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기준금리가 올라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이 증가하면 기업이 회사채 발행이나 은행 차입 등의 방식으로 외부자금을 조달할 때 지불하는 비용이 예전보다 늘어난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자금수요 자체가 위축되면서 부채규모가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만큼 투자도 줄일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중소기업에는 더 큰 부담이다. 기준금리 인상 시 중소기업의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이 대기업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연구원은 또 자금조달 시 은행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이 은행 예대율 규제 때문에 차입금 감축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기준금리 인상이 부실기업 퇴출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금

전적 금리 인상은 정상적인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해 금융안정을 오히려 훼손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법인세 인상엔 상장사 이익 2.3% 감소**  
법인세 인상의 충격도 걱정이다.

한국의 법인세율이 미국보다 높아지면 연평균 29조4000억 원의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할 것이라 분석이 있다. 일자리도 매년 10만5000명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고용시장에 환파가 몰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는 가계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현 정부의 '소득주도 경제성장' 정책이 타격이 예상된다.

미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고 한국은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릴 계획이다.

법인세가 오르면 유가증권 상장기업의 이익이 2.3% 감소할 것이라 분석도 있다. KB증권에 따르면 한국기업의 2018년도 이익전망은 코스피와 코스닥 통틀어 영업이익 238조원, 세전이익 242조원, 순이익 183조원(지배주주기준 173조원)이다.

KB증권이 법인세법 개정의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2017년 1분기~3분기 누적 법인세비용을 바탕으로 과세표준을 역산한 결과, 코스피 이익은 2.3% 줄었다. 업

종별로는 운송, 반도체, 은행, 상사·자본채 등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3% 성장에 빨간불 켜지나**  
원화값도 걱정이다. 세자릿수(900원대) 환율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기업 입장에서 환율이 내려가면 수출 물품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하고 원화 채산성(수익률)도 떨어진다. 게다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수출이 경기를 이끄는 상황에서 환율 하락은 국가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A사 관계자는 "결제 통화를 다변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수출 품목은 원화 강세가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0% 하락하면 운송장비업의 영업이익률은 4%포인트, 전기전자산업은 3%포인트, 기계장비는 2.8%포인트 감소한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자동차, 선박,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등이 대부분 타격을 입는다는 의미다.

수출기업의 가장 큰 걱정도 환율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연간 수출실적 50만달러 이상 기업 514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내년 수출기업의 경영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이슈로 '환율 변동 심화(48.4%)'를 꼽았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당 시무식에서 건배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속도 박차

내달 통합 완료 목표로 협의체 출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본격적인 통합 절차에 들어가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

2월 중 통합 완료로 목표로 하고 있는 두 정당은 통합추진협의체 출범 등 통합을 위한 세부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당은 비공식 대화채널인 '2+2 교섭창구'를 통합추진협의체로 공식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국민의당은 이 안을 3일 예정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통합추진협의체가 출범하게 될 경우 대략적인 로드맵도 제시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양당의 통합에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 내 통합 반대파들은 전당대회를 대비한 세 결집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는 등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통합 반대파 모임인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운영위원회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반대파인 박지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모든 대북 정책에서 대화와 타협이 아닌 강경 반대만 하는 보수 세력과 우리당의 정체성은 이렇게 다르다"며 "(보수통합을) 그렇게 하고 싶다면 (당을) 나가서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체성과 가치관이 다른 정당과의 통합은 경우가 다르다"면서 "국민

의당을 지키면서 남북관계를 개선, 북핵을 폐기하고 20대 국회 개원, 추경안 통과, 예산안 통과, 작년말 임시국회에서 보여준 것처럼 선도정당의 길을 가면 성공하고 보수대야합의 길은 실패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반대파의 움직임에 안철수 대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직자 시무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전(全)당원투표 참여율이 24%라고 낮다며 사실상 반대가 더 많았다고 주장하는데, 논리적으로 옳지 않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반대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른정당과의 통합 후 자유한국당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는 "적폐연대, 2단계 통합과 관련해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다"고 일축하면서, "국민의당이 바른정당보다 4배가 큰 당이다. 우리가 중심을 잡고 가면 되는데 뭐가 두렵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개혁세력의 힘을 모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바른정당 11명 소속 의원·전국원의위원장은 내부 결속과 단합 의지를 다지는 분위기이며, 별도의 투표도 진행하지 않고 국민의당 전당대회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원 기자

## 여야, 정초에도 변함없는 '대립각'

지방선거 앞두고 공세 수위 높아져  
여당, 개혁 과제 이행 중요성 강조  
야당, 개헌 시점 반발 등 강공 펼쳐

여야가 새해에도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는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를 향한 공세의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안 마련과 함께 집권 2년차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 이행을 위한 법률적 뒷받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개헌 시점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동시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UAE(아랍에미리트) 방문 논란에 대해 강공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도적인 국정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선적으로 2월 중 개헌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2018년도는 무엇보다도 '개헌의 시간'이라며 "지난 연말 합의한 대로 1월 중 서둘러 개헌 관련 합의에 합의하는 협상을 시작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최선을 다해 개헌안을 만들고,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라는 국민과의 약속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덧붙였다.

또한 그는 "지난해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권교체를 이루고, 문재인 정부가 '사람중심'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국정운영의 기틀을 세운 첫 해"라고 평가하면서 "정부여당은 지난 해 미진했던 민생개혁과제들을 차근차근 잘 이행해서 우리 사회 곳곳의 불공정과 불평등을 바로잡고, 부정부패와 부조리, 갑질 등을 뿌리 뽑는 한 해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우 원내대표는 "집권 2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단단한 국정동력을 갖고 흔들림 없이 달려 나가고, 본격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서 모두 한 마음으로 뚝뚝 뭉쳐 반드시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임 실장의 UAE 방문 논란에 대해 재차 의혹을 제기하

며 공세를 이어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의 신용과 이미지를 버리는 '망나니 같은 외교' 끝에 전 세계를 상대로 열심히 뛰고 있는 한국의 비즈니스가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순조롭게 진행되던 원전 사업이 문재인 정부 들어 갑자기 문제가 생긴 이유가 뭘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정치보복에만 혈안이 된 아파추어 정권이 국가의 연속성을 부정하고, UAE가 한국 정부와 맺은 국방·IT·의료·문화·환경 분야의 협력, 특히 군사협력 양해각서조차 적폐로 간주하고 불법성을 운운하다 돌이킬 수 없는 사안까지 초래한 것이 UAE 원전계약의 진실"이라고 말했다.

/이창원 기자 mediaeco@

## 전남지역 오리농가, 심상치 않은 AI 확산세

새해 벽두부터 전남지역 오리농가를 중심으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AI) 확산세가 심상찮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전남지역에서만 1주일 새 AI가 5건 발생하면서 살처분된 오리가 60만 마리를 넘어섰다.

지난해 12월 10일 영암군 신북면 종오리 농장을 시작으로 같은 달 19일엔 영암군 시종면 육용오리 농장에서 AI가 발생했다.

이어 같은 달 26일에는 영암군 덕진면 종오리 농장과 고흥군 동강면 육용오리 농장에서, 이들 뒤에는 나주시 공산면 종오리

농장과 영암군 육용오리 농장에서 AI가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종오리와 육용오리 농장에서 3건씩, 다솔(2건)·성실(1건) 등 계열 농장과 개인 농장에서 3건씩 발생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새해 첫날에도 전남 고흥에 있는 8300마리 규모의 육용 오리 농장에서 나주 사조화인코리아 도축장으로 출하된 오리에 대한 검사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세종=최선용 기자 grandtrust@